

작은 마음

제2382호 2025. 1. 5. 주님 공현 대축일

제1독서 : 이사야 예언서 60.1-6

제2독서 :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3.2.3-5-6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2.1-12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오소서, 성령님

전 세계 아이들의 얼굴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소서.

오소서, 예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저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님,

오시어 항상 저희와 함께하소서.

아멘.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 담화 중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그림_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



모두에게 특별했던 신사동 성당 은총시장

최주현 프란체스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구 신사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최주현 프란체스카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라는 성경 말씀처럼 2024년 신사동 초등부 주일학교의 은총 시장은 어린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늘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저학년

저학년 행사는 '놀이동산' 콘셉트로 에어 바운스와 미니 바이킹, 바나나 시소, 풍선 터뜨리기, 회전판 돌리기, 풍선 아트 등을 준비했으며, 입장권도 팔찌 형식으로 배부해 정말로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갖가지 풍선 장식과 형형색색의 가랜드, 구유 포토존을 비롯해 빼어로, 슈퍼 마리오, 백설공주, 동물 친구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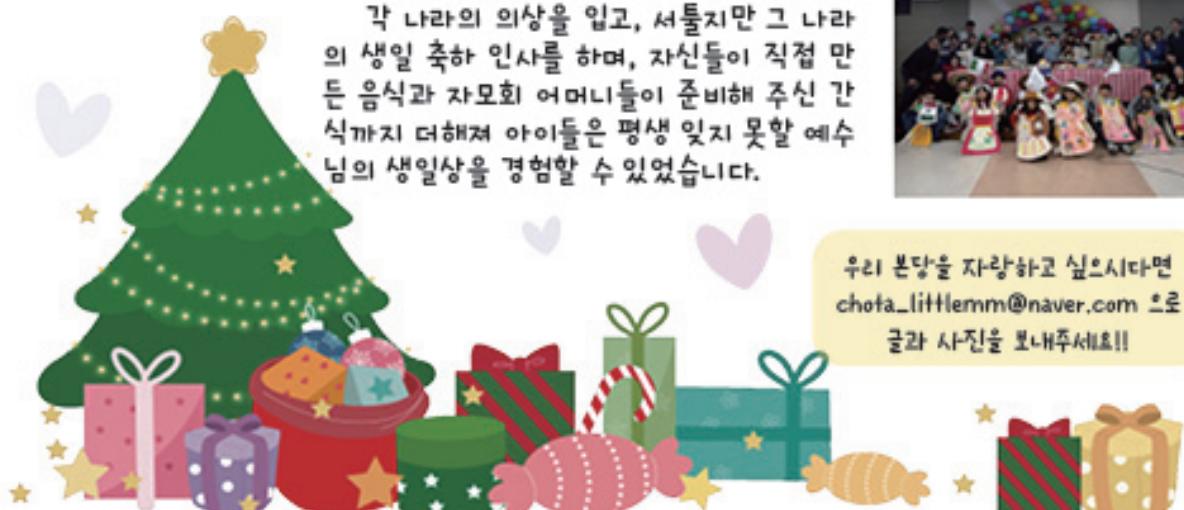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코스프레 복장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로지 저학년 친구들만의 눈높이에 맞춘 행사인 만큼 그동안 고학년 친구들에 밀려 소외되었던 저학년 친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고학년

고학년 행사는 '예수님의 생일잔치'라는 콘셉트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베트남 등 각 조별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 아기 예수님을 위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각 나라의 의상을 입고, 서툴지만 그 나라의 생일 축하 인사를 하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자모회 어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간식까지 더해져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이 생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당을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chota_littlemm@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신부님 말씀

예수님을 만나려면...



4지구 세검정 성당
홍용택 테오플로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이에요. 오늘은 또 하나의 성탄이라고 할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공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뜻이에요. 동쪽의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니,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겠지요.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박사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 계심을 알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나타나자 긴 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언제나 변치 않는 이치를 알고 싶어했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평생 기도하고 공부하며 준비했지요. 그래서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덕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헤로데 왕과 울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해치려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해요. 예수님을 만나 함께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이번 주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지내 보아요!



Q.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가져온 선물은 무엇인가요?

- ① 황금, 유향, 물약
- ② 금, 향수, 보석
- ③ 유향, 물약, 옷
- ④ 금, 향료, 약초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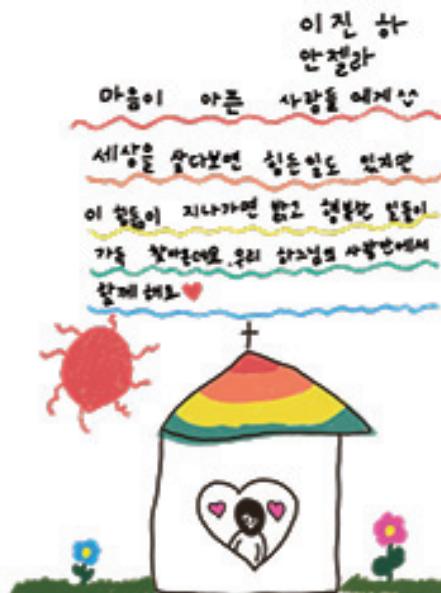


우리들의 생명 기도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우리들의 생명 기도'라는 체험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기도를 봉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를 봉헌했는데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로 따뜻한 마음을 봉헌한 **이진하 안젤라** 어린이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다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이 힘들이 지나가면
밝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 찾아온데요.
우리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함께해요.

이진하 안젤라

